



U대회 성공 개최 기원...하나된 대한민국

3일 오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 세번째부터 클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 박근혜 대통령, 윤장현·김황식 공동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연합뉴스

광주U대회, 대한민국의 위상 높여

박근혜 대통령 개회선언

“빛의 도시 대한민국 광주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U대회 개최국 최고인사가 개회선언을 하도록 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장에 따라 광주 U대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 U대회가 호남권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지역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메르스와 관련한 철저한 검역과 예방 및 단계별 대책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후 광주 U대회 기간 인천-광주간 KTX호남선 임시 증편을 비롯한 범국가적 테러 방지 시스템 가동, 메르스 방역 대책반 운영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빛의 도시 광주에서 청춘을 빛내주세요”

환영사

윤장현 공동 조직위원장

세상의 빛이 될 빛나는 청춘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빛의 도시 광주가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이곳 광주에서 펼쳐질 유니버시아드는 스포츠대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sound mind in a sound body)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지구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니

버시아드는 건강한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보다 나은 지구촌을 위해 열정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 곳 광주는 빛의 도시라 불립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광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른 길을 선도하였습니다.

그 맨 앞에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광주는 따뜻한 인정과 풍부한 감성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정다감하기에 예술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빛나는 청춘 여러분!

광주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시고,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성

껏 준비한 잔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곳 광주에서 맺은 우정으로 이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의 작은 불씨들을 모아 지구촌을 밝힐 횃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준비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해주시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클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FISU, 그리고 각국 대학스포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146개국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모든 청년이 챔피언, 희망·꿈 꾸길”

대회사

갈리앙 FISU회장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님, 광주 시장님,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에서 오신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미 두 번의 U대회를 개최한 한국은 우리에게 집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의 학생들은 우리 기억에 살아 있으며 내일의 희망입니다.

광주 U대회는 2015년 전 세계에서 열린 가장 큰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하지만 이번 U대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6년의 준비기간 동안 흘린 땀방울은 대회가 끝나고도 이어지는 U대회 유산이자, 밝게 빛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내리막길입니다. U대회 기간 함께 희망의 꿈을 꿈시다. 몸짓과 행동으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경쟁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경기장의 열정과 영광을 이끌어내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삶을 변



화시킨다는 것이며 삶을 변화시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기간 함께 야심을 품어봅시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함께 경쟁했을 때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 대회에서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고 도전하고 함께 일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인권·평화 지구촌 곳곳 전파하길”

개회사

김황식 공동 조직위원장

존경하는 대통령님, 클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각국 선수단과 심판진, 그리고 열기로 가득 채워주신 관중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청년·대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2일간 전 세계 청년·대학생들은 광주와 더불어 정의와 배움의 가치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탐과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것이며 경기장 안팎을 가득 메운 젊음의 열정과 끼는 세계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더욱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이번 대

회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의와 선의가 승리하는 미래, 서로를 향해 기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미래를 펼쳐나가기 기대합니다.

오늘을 위해, 지난 6년간 광주시민은 정성과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의 감동을 잊지 말고 지구촌 곳곳에 널리 전해 주십시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